

## 설문조사 접수 의견

타임스탬프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	서울기록원과 서울기록관 명칭 논란에 대한 의견
4-14-2015 17:38:26	사용 불가능	서울에 있지도 않은데 왜 서울기록관인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합당한가?
4-14-2015 17:47:31	사용 불가능	
4-14-2015 17:58:35	사용 불가능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생기면 명칭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4-14-2015 18:00:17	사용 불가능	
4-14-2015 18:00:23	사용 불가능	기록관이라는 명칭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4-14-2015 18:03:15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에서는 나라기록관이든 서울기록관이든 '기록관'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공공기록물법상 '기록관'은 현용기록물 관리하는 부서(기관)을 칭하는 용어이므로 국가기록원 같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즉,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대전분원, 부산분원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공공기록물법상의 용어인 '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기록관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지 않은 곳에 서울기록관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14-2015 18:05:52	사용 불가능	나라기록관이 낫다
4-14-2015 18:08:49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에 앞장서는 건 바라지 않으니 제발 방해만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제일 큰 걸림돌이 국가기록원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4-14-2015 18:11:42	사용 불가능	
4-14-2015 18:17:38	사용 가능	기록관 명칭 자체가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함. 또한 현재 서울기록관이란 명칭은 지역적 이름이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기록관처럼 행정 단위를 기입하여 차별을 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4-14-2015 18:19:23	기타	양 기관간 협의 필요
4-14-2015 18:20:13	사용 불가능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기관인 만큼, 무엇이 중시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4-14-2015 18:22:51	사용 불가능	
4-14-2015 18:23:52	사용 불가능	
4-14-2015 18:25:20	사용 불가능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생산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록의 내용이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을 대표하는 것일뿐더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4-14-2015 18:27:26	사용 불가능	기록관이라는 법정용어가 오해를 가져오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4-14-2015 18:27:42	사용 불가능	일반인들에게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관" 명칭이 헷갈리기 쉽고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

		음,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명칭사용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서울"지역을 대표하는 느낌이 강함.
4-14-2015 18:30:45	사용 불가능	서울시에서 설립하는 서울시기록관의 설립시기에 맞추어 개명한 것은 국민들에게는 혼란의 소지가 있음. 국가기록원의 업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나 나라기록관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은듯함. 모든 행정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하므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지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4-14-2015 18:37:10	사용 불가능	1. 서울기록원이라는 명칭을 공공연히 약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서울기록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이, 정확한 이유나 설명 없이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독려하지 않겠다는 의도처럼 보인다.
4-14-2015 18:55:06	사용 불가능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봄
4-14-2015 19:00:36	사용 불가능	
4-14-2015 19:32:24	사용 가능	솔직히 '서울'이라는 단어가 지역명칭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도권 비슷하게도 쓰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울기록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좀 더 확연하게 수도권 기록관이라는 걸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와서 명칭을 가지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서울시에서 꼭 '서울기록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서울기록관의 경우 이미 명칭이 바뀐 상태이고 서울기록원의 경우 이제 이름을 정하는 단계인데,, 기존의 것에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 더 안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서울시가 '서울'이라는 단어를 고집해야했다면 서울기록관에게 양해를 구해 다른 용어

		를 찾아볼 방안을 찾는 것도 차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면 좀 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14-2015 19:42:27	사용 불가능	
4-14-2015 19:42:42	사용 불가능	
4-14-2015 20:14:04	사용 불가능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과 착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서울과 같은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나은 듯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서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부여할 이유는 없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은 서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기록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의문입니다.
4-14-2015 20:20:04	기타	사용 가능 하지만 잘못된 일 / 설문조사의 문항과 보기가 좀 더 다양해야 설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4-2015 20:34:06	사용 불가능	혼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니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예) 국가기록원 서울분원 등
4-14-2015 20:36:31	사용 가능	이런 설문을 하시려면 목적이 먼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항도 하나밖에 없고 부실한 듯...바뀔 수는 있는 건지...
4-14-2015 21:12:44	사용 불가능	권역별 기록보존소의 명칭이 서울에 국한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기록원과 명칭이 중첩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을 강행한 것 자체가 무모한 것 같다. 국가기록원의 작명센스. 한마디로 완전구리다.
4-14-2015 21:47:35	잘모르겠음	* 서울 기록관과, 서울 기록원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저의 견해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부분에 성남이 들어 가는 것이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예, 성남서울기록관 .....등)

4-14-2015 22:03:17	사용 불가능	서울시기록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14-2015 22:06:20	사용 불가능	
4-14-2015 22:07:12	사용 불가능	
4-14-2015 22:17:57	사용 불가능	서울특별시 기록원과 혼동의 우려가 있음.
4-14-2015 22:18:20	사용 불가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개별 기록관과 협업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14-2015 23:19:04	기타	굳이 명칭에 서울을 써야 할까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기록원 산하에 각 지역의 기록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기록원과 서울기록관이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면 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4-15-2015 0:30:50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한국의 각종 기록관리기관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점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서울기록관의 영문명칭을 Seoul Archives로 한 것은 최소한의 지식도 구비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 창피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4-15-2015 1:20:17	사용 불가능	명칭의 측면에서, 기록관은 기본적으로 RM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적 용어인데 AM인 국가기록원의 명칭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권역별로 구분했을 경우,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법으로 보장했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4-15-2015 8:30:07	사용 불가능	
4-15-2015 9:21:24	사용 불가능	자치단체 고유 명칭은 자치단체만 쓸 수 있으면 좋겠음
4-15-2015 9:33:38	사용 불가능	서울기록관도 부산기록관처럼 하나의 지역 기록관에 불과하지만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기록관인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성남에 있는 것을 서울기록관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성남기록관으로 불러도 될 듯 합니다.
4-15-2015 9:43:06	사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기록원과 기록관의 명칭 혼동</li> <li>. 서울기록원의 위상과 기록관의 위상 차이</li> <li>. 성남기록관의 명칭을 단순지명이 아닌 차별화하는 방안 모색</li> </ul>
4-15-2015 9:53:37	사용 불가능	<p>법률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p> <p>이는 각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생겨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도 각 지방에서 국비를 전제로 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의 움직임이 있음.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도시의 고유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시 반드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임</p> <p>이점에서 반드시 도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p>
4-15-2015 10:00:54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최초 건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위상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4-15-2015 10:06:40	사용 불가능	
4-15-2015 10:16:30	사용 불가능	'서울'이란 이름은 서울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기관에 붙여야 마땅합니다. 상식적으로 서울기록관이라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굳이 서울기록관으로 명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15-2015 10:26:28	사용 불가능	서울기록원과 이름이 유사하여 구분이 힘들고 나라기록관 이름이 더 좋아 보임
4-15-2015 11:32:10	사용 불가능	성남 나라기록관은 애초에 서울이라는 특정 도시가 아닌 경기, 강원권 기록관리를 위해 설치되었고 서울과 실질적 기록관리 연관성과 지리적 연관성이 없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서

		올시 아카이브와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포괄적 기록물관리를 지향해야 할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정체성을 버리면서 개칭을 시도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4-15-2015 11:52:23	사용 불가능	문제가 많음. 부산기록원도 마치 부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서울분관, 부산분관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4-15-2015 12:07:00	사용 불가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고 대전이나 부산의 경우도 지역이 아닌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이란 명칭이 붙으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15-2015 14:09:40	사용 불가능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기록관으로 오해할 수 있음 국가기록원 부산분관, 국가기록원 성남분관 등 그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기록관, 서울기록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니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짐
4-15-2015 14:15:46	사용 불가능	1.서울시가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의 명칭은 그 기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명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설립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서울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명인 '서울'을 사용하여 '서울기록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2.국가기록원 지방분원 명칭에 대한 제언 이번 국가기록원 지방분원의 명칭변경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개명하였는데, 부적절한 명칭변경으로 보여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도록 독려하는 기관이 지방을 상징하는 명칭을 선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님. 지방명칭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국가기록원 지방분원의 명칭을 제시해보고자함 -성남나라기록관→'경인지록관' -부산역사기록관→'영남기록관'

		<p>-대전기록관→'중부기록관'</p> <p>3.결어</p> <p>국가기록원은 지방분원의 명칭을 관할하는 지역 등을 고려한 명칭으로 명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미비하지만, 지방의 명칭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p>
4-15-2015 14:26:30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기록을 총괄 관리하는 곳으로서,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서울에 있는 기록만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4-15-2015 15:02:59	사용 가능	원론적으로 명칭은 사용가능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기록원" 추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성숙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4-15-2015 15:06:14	기타	다시 고려해 봤으면 함. 위치한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시설과 장비, 면적 및 소장자료의 양, 그 동안의 사업을 보았을 때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기록관이라 칭하는 것이 어찌 좀 이상합니다. 마치 명칭에서 풍기는 어감이 서울시기록관으로 느껴집니다.
4-15-2015 15:11:45	사용 불가능	기록관리전문가조차 헛갈리는 명칭인데, 일반인들은 더욱 구분 못 할 듯합니다. 명칭이 혼동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을 보관한 4대 사고는 그 지역명 또는 그 지역 산 이름을 써서 했다. 현대에 와서 서울 또는 세종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해서 지역적으로 성남에 있는 기록관 이름을 상징적 명칭으로 서울이라 바꿔서 칭한다니,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본다. 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4-15-2015 15:13:07	사용 불가능	1.'기록관'명칭사용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전면개정 (2007년) 부터임</li> <li>- 따라서 법령상 '기록관'은 현용기록물관리기관임</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보존서고 역할을 하는 성남의 현 '서울기록관'에 기록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li> </ul> <p>2. '서울'지명 사용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서울기록관'의 소재지가 서울도 아니며, 서울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곳도 아님</li> <li>-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곳임</li> <li>- 소재지, 소장기록물과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지명임에도 '서울'의 지명을 쓰는 것은 굳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li> </ul> <p>3.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지원에 대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을 못해줬다면 다른 측면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역할일 것이나, 굳이 유사한 기관명으로 변경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음</li> </ul>
4-15-2015 15:42:49	기타(서울중부기록원)	<p>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및 부산기록관의 명칭 또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처리과 대상 기록물에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조직으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법(약칭) 제13조(기록관)에서도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기록관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분산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기록관이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00원이라는 기관 명칭이 더욱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이라는 지역명을 기록원이 사용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더욱 독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 바로 지역명으로 시작하는 000원일</p>

		<p>것입니다. 만약 충북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세워진다면 당연히 '충북기록원' 또는 '충북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명칭이 붙여질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수많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서울기록관이라는 명칭은 매우 협소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세워질 것이 예상된다고 할 때, 정말 안일한 생각의 말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황한 글입니다. 결론은 국가기록원으로서 걸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서울기록관이라는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p>
4-15-2015 16:12:43	사용 가능	
4-15-2015 16:49:21	사용 불가능	<p>&lt;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gt; 제10조(기록관의설치)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기록관 설치대상이 아니며, 또한 제12항에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국가기록원이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자체서고를 기록관으로 부르는 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네요.</p> <p>도서관처럼 국립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과 같이 앞의 명칭을 달리하고 동일하게 도서관이란 명칭을 공히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국가기록원도 국립중앙기록관이라 개칭하고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하는 게 맞겠지요.</p> <p>그러나 기록관은 이미 법령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기록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정히 기록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싶다면 법령개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p>
4-15-2015 16:59:48	사용 불가능	<p>서울만 관리하는 기록관이 아니므로 적절한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특별시와 혼동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p>
4-15-2015 17:01:23	사용 불가능	
4-15-2015 17:51:11	사용 불가능	<p>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p>

4-15-2015 17:52:03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을 권역별로 구분하기 위해 서울/대전/부산기록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나, 기록관리국가기관이자 중앙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권역별로 OO기록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는 각 지역별 기록관 건립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가기록원(서울분원,대전분원,부산분원)식으로 구분하거나,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4-15-2015 18:00:56	사용 가능	
4-15-2015 19:22:39	기타	서울기록관 명칭을 사용한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명칭을 양측에서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유형의 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점이 명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5-2015 21:26:59	기타	지리적으로 서울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서울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국가기록원 하부 기관에 '기록관' 이란 명칭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도 부적절함.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대전분원, 부산분원 정도로 부르는 게 적절함
4-15-2015 23:34:07	사용 불가능	1.일반인 등에게 헛갈릴 수 있음 2.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작명인듯.(특히 차후 생길 예정인 서울기록원) 3.인천,경기권을 무시한 처사.(위치도 경기도 성남시인데...)
4-16-2015 2:09:48	사용 불가능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저열하게 날로 먹으려 한다. 기록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 그리고 운영정책 등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름하나 가져와서 눈가리기 식으로 해선 아니된다. 솔직히 이름 뒤에 숨어서 기록관 이용자들에게 고의적인 혼선을 초래하려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너무나도 당당히 행하는 작태. 통탄할 노릇이다. 그렇게도 그 이름을 쓰고 싶으면 핑계라도 제대로대면 좋겠다. 이건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4-16-2015 8:54:54	사용 불가능	서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관에 느낌이 강합니다.
4-16-2015 9:19:25	사용 불가능	
4-16-2015 9:26:22	사용 불가능	서울은 우리나라의 행정을 대표하는 명칭이기는 하나 지역 명칭으로 국가기록의 서고 역할을 하는 곳에 명명한다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 서울기록관으로 명칭을 사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기록관을 설립을 할 경우 해당 지역명으로 설정할 것이기에 그 사례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기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록원 소속의 분관기록관은 지역명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6-2015 11:09:20	사용 불가능	서울특별시 기록관이 서울기록관이라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서울기록원) 명칭 사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6-2015 12:19:17	사용 가능	
4-16-2015 13:03:28	사용 불가능	
4-16-2015 13:25:18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과 서울시에서 건립 중인 "서울기록원"이라는 명칭이 중첩되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명칭을 쓴 "서울기록관"보다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 명칭을 공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4-16-2015 13:37:17	사용 불가능	
4-16-2015 13:38:05	사용 불가능	해당 명칭 사용불가능 1.지방기록관과 혼란 야기

		2.부산기록관이나 대전기록관처럼 지역명을 따라 성남기록관이 적절
4-16-2015 14:43:59	사용 가능	왜 싸우는지 모르겠음...
4-16-2015 15:35:01	사용 불가능	지방기록관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원과 협의 없이 서울기록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16-2015 16:01:43	잘모르겠음	
4-16-2015 19:08:21	사용 불가능	서울시기록관과 차이점이 뭔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헷갈림
4-17-2015 11:10:37	사용 불가능	
4-17-2015 19:20:31	사용 불가능	기록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기록원과 서울기록관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9-2015 21:47:25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이 왜 굳이 명칭 사용을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4-20-2015 11:58:51	사용 가능	
4-20-2015 12:39:32	사용 불가능	국가기록원의 행태가 치졸하다